

'무주산골영화제' 손님맞이 분주

군, 3일까지 주요 행사장·도로 등 환경정비·안전점검 추진

무주군이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오는 6월 3일까지 손님맞이를 위한 대대적인 환경정비와 안전점검에 나선다.

정비 대상은 등나무운동장을 중심으로 자남공원과 예체문화관, 무주상상반디숲, 최백미술관·김환태문학관 등 영화제가 열리는 주요 행사장과 주변 도로, 주요 관광지 일원이다.

무주군은 도로와 납대천 둔치, 산책로 등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와 잡목 제거, 풀베기 작업을 진행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무주읍 시가지 가로등 청소를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해 방문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높일 방침이다.

안전점검은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 건축·전기·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주민들이 평소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점검



무주군이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오는 6월 3일까지 손님맞이를 위한 대대적인 환경정비와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 사고 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영화제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무대와 관람시설, 임시 설치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영화제에서는 27개국 90편의 영화가 또 야외 행사장의 누전 여부와 규격 점선 사용 상태, 가스 용기 관리 상태와 배관 누출 여부 등 화재와 안전사

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등나무운동장을 비롯한 예체문화관 일원과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등에서 개최된다.

영화제에서는 27개국 90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음악 공연과 전시,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무주군이 6월 1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카드 또는 무주사랑상품권 매출액에 대한 결제수수료 0.4%이며, 업체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정상 영업 중인 사업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2개 사업체까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무주사랑상품권 매출액에 대한 결제수수료 0.4%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 전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문 신청은 무주읍을 비롯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2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온라인 마케팅 지원, 노란우산공제 지원, 전기요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문등록 서비스 호응

진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적극행정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 29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지난 3월 입국한 라오스·베트남 국적 신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1명과 고용 농가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문

등록 서비스'와 '고용농가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절차를 위해 반드시 지문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동안 농가주가 근로자들을 인솔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진안군은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출장 등록 방식의 현장 서비스를 마련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지난달 28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촌진흥청과 축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지원 및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역 상생 모델 구축 협력

장수한우지방공사-전북대-농촌진흥청, 업무협약 체결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축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지원과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해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촌진흥청과 손을 맞잡았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지난달 28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촌진흥청과 축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지원 및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진흥청의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지역 대학, 공공기관의 교육 및 현장 역량을 연계해 축산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축산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고 국제협력 대상 국가의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술 및 기술정보 교류를 활성화해 축산기술 발전과 국제협력 확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오는 8월에는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 농촌진흥청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 중인 아시아 6개국 연구자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사 및 종축개량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축산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국제 농업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우 개량과 축산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공익적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이를 통해 축산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국제 농업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우 개량과 축산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공익적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정천면, 면민의 장 수상자 5인 선정

진안 정천면(면장 정재민)은 제42회 정천면민의 날을 맞아 면민의 장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

정천면은 면민의 장 선정심사위원회를 갖고, △공익장 박희규(72세, 삼조림마을) △효부장 김춘삼(81세, 조림마을) △애환장 고찬주(63세, 광양치) △장수상 김영애(92세, 마조마을) △산업장 김용일(62세, 감두마을) 씨를 최종 선정했다.

공익장 박희규 씨는 정천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2회, 삼조림 마을이장 8년을 역임하였고, 각종 사회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효부장 김춘삼 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픈 남편을 5년간 집에서 홀로 국진히 간병하고 송고한 가족애를 보여주어 타의 귀감이 되었다.

애환장 고찬주 씨는 정천 출신 대표적 기업인으로 고향 발전에 기여하였고, 특히 지역 어르신들에게 기업 무료 선진지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넓은 애환심을 발휘하여 향우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칭송받고 있다.

장수상 김영애 씨는 아흔을 넘긴 고령임에도 덕망 높은 인물로 마을의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주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산업장 김용일 씨는 오랫동안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바 본분을 다함은 물론 다양한 작목의 시설하우스 선도농 역할을 맡아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농업발전을 이끌었다.

한편, 정천면민의 장은 오는 6월 13일 정천면 체련공원에서 열리는 '제42회 정천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장수군이 지역 산업구조와 경제활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장수군은 6월 1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관내 사업체 2,388개소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수군 내에서 산업활동 등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기본 현황과 고용 형태, 연간 매출액, 영업비용 등 경영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경제총조사는 전국 사업체의 규모와 분포, 산업별 구조 및 경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정통계조사다.

조사 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은 물론 지역별 산업 현황 분석과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사업체의 응답 편의와 부담 완화를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와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돌발병해충 대응 공동방제 약제 공급

진안군이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돌발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방제 약제 공급에 나섰다.

군은 총사업비 2,453만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갈색 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구입하고, 오는 6~7월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방제는 사과, 포도, 오미자, 블루베리, 복분자 등 15개 작목, 총 142ha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4종의 약제 1,688병(봉)을 확보했으며,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단 협의회를 통해 방제 효과와 현장 활동도를 고려해 약제를 선정했다.

약제는 선정업체가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각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약제 수요 파악과 신청 내역 확정 역시 읍·면 농업인상담소 협조를 통해 진행했으며, 군은 6월 초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